

# 공공연맹 상반기 투쟁 중간평가

유병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책팀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연맹도 4·5월 투쟁에 이어

현재 임단투를 통한 투쟁전선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공연맹의 상반기 투쟁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으므로 투쟁에 대한 평가는

최종평가가 아닌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다.

## 1. 들어가는 말

노동현장을 달구었던 투쟁이 잠시 소강상태를 맞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잠시 소강상태일뿐 현장의 분위기는 정부와 사측의 지나친 탄압과 노동자 죽이기로 다시 한번 투쟁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동위원장 김호선 석치순 양경규, 이하 공공연맹)도 4·5월 투쟁에 이어 현재 임단투를 통한 투쟁전선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공연맹의 상반기 투쟁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으므로 투쟁에 대한 평가는 최종평가가 아닌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다.

공공연맹은 이미 '공공대통합과 99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 (공투본) 시절부터 투쟁을 조직하면서 "대정부투쟁을 통한 1차 전선 구축없이 기업별 노조가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하는 고전적인 임단투는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투쟁을 조직했고, 이런 기조에 따라 앞으로 진행할 기업별 임단투라 하더라도 이는 4·5월 투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연맹 총력투쟁에 대한 평가는 상반기 투쟁의 종료 후에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이 공공연맹의 토론을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맹의 공식 의결기구에서 논의된 최종 평가를 토대로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공공연맹의 공식의견은 아니며 공공연맹 안에서 일하는 한 실무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 2. 공공연맹 투쟁 경과

공공연맹은 1999년 3월 13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구 공공연맹),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익노련),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민철노련)이 통합하여 창립한 신설연맹으로 한국통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대림엔지니어링노조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그 노동의 성격이 강한 공익성을 띤 업종의 110여개 노동조합, 9만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거슬러 올라가면 공공부문 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들 중 일부가 이후 구 공공연맹으로 이어짐), 운수산별노조추진위원회,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공익노련 전신) 등을 전신으로 한다. 이들 세 조직흐름은 이미 오래 전부터 통합을 논의해 왔는데 특히 1998년 4월 구 공공연맹이 창립된 후 공공부문 통합을 위한 재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번의 통합은 자본의 성격에 따른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노동의 성격이 강한 공익

성을 띤 노동조합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연맹 혹은 노조별로 내부 논의를 좀 더 충실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8년 내 통합이 힘들게 되자 12월 16일 3연맹 대표자회의를 거쳐 통합준비위원회를 통합만이 아니라 99공동투쟁까지 함께 담당할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를 인정하고 12월 22일 통합준비위원회를 <공공대통합과 '99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공동투본)로 전환했다. 3연맹이 추진한 공동투쟁은 예전의 투쟁과는 성격을 크게 달리 했다.

### 1) 공동투쟁·연대투쟁·시기집중투쟁

민주노조진영은 공동투쟁에 관한 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수년간 임단투철이 되면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논의해왔고 또 실제로 함께 싸워왔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의 공동투쟁이 되려면 공동 요구사항, 공동의 적(상대방), 공동의 기술을 갖춘 단일한 조직이 투쟁을 해야 한다. 과거의 투쟁은 이런 의미에서 공동투쟁이라기보다는 느슨한 연대투쟁 혹은 시기집중투쟁이었다. 이번의 공동투쟁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과거와 성격을 달리 했다.

### 2) 공동투쟁의 목표와 요구

공투본은 이번 공동투쟁의 목표를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으로 잡았다. 정부의 공공부문정책, 노동정책은 고용시장유연화, 임금제도 유연화, 노조 무력화, 성과주의에 입각한 공공부문 정책 등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설령 어느 지침 하나를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다른 지침이 또 떨어질 것이므로 소용없고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투쟁의 목표로 내걸었다.

공투본은 이런 목표에 근거하여 ① 노동시간단축 ② 공기업의 공익성 유지, 재벌매각·해외매각 반대 ③ 연봉제 철폐 ④ 퇴직금제도 개악·복리후생 축소 철폐 ⑤ 공공부문 임금 대정부 직접 교섭 ⑥ 노동조합(노동자대표)의 경영참여 보장이라는 6대요구를 내걸었다. 이들 공동요구는 단위노조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부문의라면 거의 전부, 민간부문이라해도 주요 사항이 해당되는 현안사항이었다.

### 3) 교섭권 위임

위에서 단일대오로 투쟁할 때만 공동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고 했으나 단일대오로 묶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공투본은 이런 목표에 근거하여 ① 노동시간단축 ② 공기업의 공익성 유지, 재벌매각·해외매각 반대 ③ 연봉제 철폐 ④ 퇴직금제도 개악·복리후생 축소 철폐 ⑤ 공공부문 임금 대정부 직접 교섭 ⑥ 노동조합 노동자대표의 경영참여 보장이라는 6대요구를 내걸었다.

아니다. 단위노조가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속되려면 “투쟁의지”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더해져야 한다. 공투본에서는 투쟁의 주요 전술로 교섭권 위임전술을 택했다. 교섭권 위임전술은 ① 중앙으로 힘을 모으고, ② 연맹이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할 명분과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고, ③ 단위노조가 개별적으로

사측과 구조조정안에 합의하고 투쟁전선에서 이탈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술이다..

### 4) 대정부 교섭 요구

각종 구조조정은 단위 기관 혹은 기업을 넘어서서 정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위원회(지금은 기획예산처)의 지침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위기관 혹은 기업은 거의 재량권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의 적은 정부(기획예산위)였다. 공투본에서는 구조조정투쟁의 성격상 아무런 실권이 없는 단위기관 사측하고 교섭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대정부 직접교섭을 주요한 투쟁전술로 잡았다.

### 5) 투쟁경과

4월 19일부터 서울지하철을 비롯한 공

공연맹 17개 노조 2만 1천명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후 서울지하철은 계속해서 전면파업을 유지했으나 공공연맹내 다른 노조는 하루 또는 2~3일 정도의 파업, 총회투쟁, 집회참가 등으로 수위를 조절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과학의 날인 4월 21일 파업에 돌입하는, "생일날 총파업을 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을 잘 드러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동력이 다른 노조 파업에 비해 강고한 것은 분명했으나 24일부터 하강곡선으로 전환되었으며, 4월 26일 한통노조의 파업 돌입 실패로 지하철노조

동력이 급속 저하하고 조합원 사이에서 일정정도 동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두리하게 파업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서울지하철노조는 연맹과 협의하여 4월 26일 저녁 복귀를 선언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이전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직권면직시한인 "마(魔)의 7일"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과거에서는 복귀시점쯤 해서는 조직이 많이 깨졌는데 이번에는 조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직적 퇴각을 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랐다.

이후 공공연맹은 4월 28일 전국의료보

민주노총의 경우 연맹의 투쟁을 담보로 대정부 교섭항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한 역할중의 하나였으나 성과있는 대응을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진은 민주노총이 주최한 투쟁선포대회.



대정부총투쟁

협노조, 한국체육산업노동조합 등 50개 노조 2만명의 하루 파업으로 4월 투쟁을 일단락지었다. 원래 4월 투쟁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공공연맹 이외의 투쟁은 힘있게 조직되지 못하고 사무금융, 대학, 금속산업연맹 등에서

부분적, 제한적으로 투쟁에 참가하는데 그쳤다. 이후 공공연맹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 금속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중심의 민주노총 투쟁에 일정을 맞춰 14일 12개 노조 1만여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 3. 4·5월 총력투쟁 중간평가

#### 1) 성과

##### ① 연맹의 목표와 요구를 분명히 한 투쟁

이번 투쟁의 최대 성과는 과거와 같이 단위노조별 투쟁시기를 일치시킨 투쟁과는 달리 분명하게 연맹의 목표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한 파업이라는 점이다. 이후 우리의 조직발전 전망이 산별 노조라는 데 점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맹의 목표와 요구를 전면내 내걸고 투쟁한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민주노조 진영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산별노조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실천은 지지부진했다. 산별노조 건설이 단순히 산별노조 건설의 당위성을 내세운다고

**연맹의 목표와 요구를 부각시키는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작 그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투쟁과 같이 기업별 요구를 넘어서서 연맹의 목표와 요구를 전면내 내걸고 연맹의 이름으로 투쟁한 것은 이후 산별노조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다.

##### ② 대안을 제시한 투쟁

이번 투쟁은 노동시간단축, 내정부 직접교섭 등 사회적으로 보나 노동계의 교섭 틀 전환을 놓고 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이것들을 널리 선전해낸 투쟁이다. "내세웠던 요구조건을 얼마나 달성했나"하는 식의 평가기준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타당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고 산별교섭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후 연맹과 민주노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투쟁이다.

##### ③ 준비된 파업

이번 파업은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시작한 투쟁으로 준비정도를 놓고 말한다면 다른 어떤 투쟁보다 준비된 투쟁이다. 1998년 투쟁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중의 하나가 "누르니까 반발한다"는 식의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투쟁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1998년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었고 워낙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

서 준비되지 않은 투쟁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1999년 투쟁은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설령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 투쟁이다.

#### ④ 연맹의 통합성을 높인 투쟁

언론과 정부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4월 투쟁을 서울지하철노조의 투쟁으로 축소시키려 했으나 투쟁이 지속될수록 공공연맹의 파업이란 점이 알려졌고 단위노조에서도 공공연맹의 파업임을 인지했고 연맹 중앙의 투쟁지침을 따르고자 노력했다. 투쟁 시점에서 설립된 지 불과 1개월 된 연맹으로서 투쟁을 조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투쟁을 통해 연맹의 지도력과 통합성을 높인 투쟁이었다. 투쟁과정에서 연맹의 미숙함 혹은 실수도 있었으나 파업돌입 시점에서 설립된 지 1개월된 연맹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투쟁과정에서 연맹의 중심성이 커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성과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 2) 한계

### ①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연맹의 목표와 요구를 부각시키는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작 그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연맹 목표의 성격상 한번의 투쟁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4·5월 투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 조합원 대중들의 실망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문제다. 오랜 기간 노동운동에 종사했고 민주노조진영의 이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해온 활동가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도 위에서 지적인 성과를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대다수 조합원 동지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크게 실망을 하고 있다. 이 동지들의 패배감을 불식시키면서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현재 연맹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 ② 주요 단위노조 중심의 투쟁

위에서 "공공연맹의 파업"이라고 평가했으나 그 이면에는 서울지하철노조, 한국통신노조의 투쟁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에 의해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4월 투쟁은 서울지하철노조의 투쟁으로 비춰졌고 이는 부정하려고 해도 다른 노조들이 힘있게 반치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통신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지 못한 것이 서울지하철노조의 투쟁 동력 저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역시 이번 투쟁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주요 단위노조 중심으로 투쟁이 배치되다보니 중소기업노조의 투쟁을 연맹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투쟁과정에서 중소기업노조의 소외감, 혹은 "큰노조 쳐다보기"는 이번 투쟁의 또 하나의

한계였다. 그나마 5월 투쟁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③ 일부 노조에서 연맹 중앙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

사고성 노조는 물론 조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노조 일부조차 연맹중앙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투쟁대열에서 이탈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지하철노조 등 힘있게 투쟁하던 노조마저 힘을 상실하게 했다. 이에 대해서는 연맹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단위노조(지도부)에 대한 지도와 동시에 단위노조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혹은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연맹의 부족함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후 보완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④ 고립된 투쟁.

이번 투쟁의 경우 형식상 민주노총의 투쟁이지만 실제로는 4월 투쟁의 경우 공공연맹의 투쟁에 머물고 말았고 5월 투쟁은 몇몇 연맹의 투쟁에 머물고 말았다. 이리다 보니 전면에 나서서 투쟁하는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총알받이냐"는 푸념이 나왔고, 연맹과 민주노총에 대한 불평이 없을 수 없었다. 이는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

사고성 노조는 물론 조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노조 일부조차 연맹중앙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투쟁대열에서 이탈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지하철노조 등 힘있게 투쟁하던 노조마저 힘을 상실하게 했다.

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이다. 이번 투쟁은 이후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내 산별연맹간의 의견조율 과정을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한 투쟁이었다.

⑤ 교섭기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함

투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강한 교섭력을 갖기 위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투쟁과정에서 강해진 교섭력을 토대로 적절하게 교섭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투쟁과정에서 만들어진 몇몇 교섭국면에서 효과적으로 교섭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강화된 교섭력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는 투쟁성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입지 속에서 교섭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단지 인맹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민주노총 전체에 걸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5월 투쟁과정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교섭국면을 활용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노총의 경우 연맹의 투쟁을 담보로 대정부 교섭(혹은 접촉)장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주요한 역할중의 하나였으나 성과있는 대응을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 3) 총괄평가

개별 전투를 중심으로 당장 이번 투쟁에서 성취한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연맹 나아가 민주노조의 장기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출범한지 1개월된 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겨루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단순히 현시점에서 전투를 놓고 평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놓고 이번 투쟁의 의의를 살펴야 연맹과 민주노조 진영의 장기 사업 계획 입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맹, 나아가 민주노조의 발전방향을 실천적으로 제시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볼 때 커다란 의의가 있다할지라도 이번 4·5월 투쟁을 놓고 볼 때 성과가 있는 투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투쟁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부분적으로 구조조정 일정을 늦춘 측면은 있으나 공무본 시절부터 내세운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꾼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다 보니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꾸거나 적어도 일정 정도 제동을 건 다음에 이를 토대로 단위노조별 입단투를 진행한다는 원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 투쟁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① 한마디로 역부족이

4월 투쟁은 서울자하철노조의 투쟁으로 비워졌고 이는 무상하려고 해도 다른 노조들이 힘있게 반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사실이다. 사진은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동자 공공연영 지도부





었다. ② 앞의 평가에서도 나왔듯이 민주노총의 엄호 투쟁이 기대에 못 미쳤다. ③ 연맹내 조직 동력이 미약했다. 물론 일부 노조는 기대한 만큼 혹은 기대이상으로 싸웠으나 전체적으로 연맹 모든 노조의 투쟁이 조직되지는 못했다. ④ 정부의 완강함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도 자신들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정권 차원의 문제였으므로 총력을 기울여 완강하게 버텼다. ⑤ 여론 작업도 부족했다. 여론에서 많이 밀렸다. 그러나 우리가 여론 반전작업을 하지 못한 것은 작전 실패라기 보다는 우리 역량의 한계이며, 이 사회 보수세력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가 언론이 얼마나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이다. 실제로 기사를 상대로 진실(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견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객관적인 수치)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다음날 신문에서는 엉터리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 4. 전선 재구축

##### 1) 전선 재구축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공공연맹은 7월 투쟁을 정리 하면서 7·8월 하한기를 이용하여 투쟁을 평가하여 이후 연맹의 장기사업을 구상 하는데 토대로 삼을 것이다. 공공연맹은 한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좌절하지는 않는다.**

연맹의 목표는 성격상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올해만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과 같은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계속 펴는 한 이 목표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정부를 상대로 또 한번의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연맹의 판단이다. 연맹에서는 4·5월

투쟁과정에서 많은 노조가 조직적 침탈을 당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현장 동력도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동력 회복을 위해 단위노조 현장 조합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임단투를 갖고 접근하면서 전선을 재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는 곳은 결국 단위기관이다. 이 단위기관에서 임단협을 통해 다시 한번 전선을 재구축해야지만, 연맹의 총파업 형태로 투쟁을 조직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그럴 가능성은 열어두되 단위노조 임단협 투쟁을 시기 집중하여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연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기조를 바꾸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 노조의 임단투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 지침을 단위기관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단협을 통해 방어한다면 한계가 있다고는 해도 일정정도 저지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위노조

에서는 연맹의 업호를 받아가면서 현장 전선을 구축하고 연맹에서는 정치적 선전, 언론대책, 선전홍보작업 등 정치공세를 담당하되 4·5월 투쟁에서 우리가 여론화 작업에서 많이 밀렸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론 반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연맹의 인식이다.

## 2) 임단투로 전술전환

이런 인식에 따라 연맹은 임단투로 전술을 전환하는데 이번의 임단투 투쟁은 4·5월 투쟁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조건 개악을 막아내고, 연맹의 공동요구를 내걸고, 기업별 노조 차원의 작은 투쟁을 넘어서서 연맹의 투쟁을 조직하고, 공세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4·5월 투쟁과 기본기조는 다를 바 없다. 그러나 4·5월 투쟁이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를 주요하게 전면에 부각시키고 연맹 차원,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을 전면에 내세운 투쟁인데 비해 이후 투쟁은 개별기업을 상대로 임단협을 전면에 내세운 전술차원의 전환이 이

루어진 투쟁이다. 공공연맹은 4·5월 투쟁에서 제기하였던 연맹 6대요구를 단위 노조 단합에 걸맞게 조정하여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연맹으로 위임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투쟁 사업장은 7월 10일을 전후한 시점에서 시기를 집중하여 다시 한번 전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 3) 이후

공공연맹은 이번 투쟁의 한계와 함께 투쟁을 통해 이후 연맹의 발전방향을 보여주었다는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7월 투쟁을 정리하면서 7·8월 하한기를 이용하여 투쟁을 평가하여 이후 연맹의 장기사업을 구상하는데 토대로 삼을 것이다. 공공연맹은 한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좌절하지는 않는다. 노동운동은 희망을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이며, 공공연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